

스포츠 동아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sportsdonga.com 10판

1위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2년 연속 1위

최강희-김신욱 '대륙정벌의 꿈' ▶2면



최강희 감독

김신욱

20홈런-20도루 눈앞 '영리한 김하성' ▶6면



김하성

출국금지 당한 양현석, 곧 공개소환? ▶15면



양현석

'엑시트' 이상근 신인감독의 반란 ▶16면



이상근 감독

양익지 역대 2번째 '포수 타격왕'이냐? 강백호 '최연소 타격왕'이냐?

양 vs 강 '위대한 도전'

〈양익지〉

〈강백호〉



NC 양익지와 KT 강백호(왼쪽부터)의 타격왕 경쟁이 뜨겁다. 양익지는 35년만의 포수 타격왕 강백호는 역대 최연소 타격왕 등극이라는 타이틀이 걸려있어 경쟁이 더욱 흥미롭다. NC와 KT의 5강 싸움이 한창이라는 점도 타격왕 경쟁에 불을 붙이는 요소다.
스포츠동아 DB

타율 0.351 강백호, 부상 딛고 타격1위 불꽃 최연소-역대 4번째 2년차 이내 타격왕 조준 강철체력 양익지, 타율 0.363 '장외 타격왕' 규정타석텐 이만수 이어 새 역사 쓸지 기대



'역사를 향해 쏜다!'

매 시즌 종료가 가까워질 때면 팀 순위만큼이나 개인 타이틀 주인공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9일까지 전체 일정의 80% 가까이 소화한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도 다르지 않다.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2위 싸움, NC 다이노스와 KT 위즈의 5위 다툼만큼 개인기록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좋은 개인 기록은 곧 팀 성적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타격왕 경쟁이 가장 뜨겁다. 나란히 부상을 딛고 선 이들은 각기 다른 역사에 도전하고 있다. 주인공은 강백호(20·KT)와 양익지(32·NC)다. 강백호는 6월말 손바닥 자상으로 43일, 양익지는 7월 중순 내복사근 혈중으로 31일간 1군 엔트리에서 빠진 바 있다. 부상으로 제 컨디션을 유지하

기 어려운 상황에도 위대한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기에 더욱 대단한 행보다.

●강백호, 지금까지 이런 약관은 없었다!

지난해 고졸 신인의 홈런 관련 각종 기록을 다시 쓰며 신인왕에 등극했던 강백호는 올해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조금 더 정교한 타격을 위한 이강철 감독의 요청에 부응하며 장타보다는 콘택트에 신경을 쓰고 있다. 또래 선수들은 프로 투수들의 공을 상대하기도 벅찬 2년차 시즌이지만 강백호는 스타일 변모까지 완벽히 해냈다. 87경기에서 타율 0.351, 10홈런, 45타점을 기록하며 타격 1위에 올라있다.

이대로 타격왕에 등극한다면 역대 최연소 기록을 갈아 치우게 된다. 종전 기록은 2008년 김현수(당시 두산 베어스·현 LG 트윈스)로 나란히 만 20세다. 하지만 1월생인 김현수보다 7월생인 강백호가 1991년 빠르다. 아울러 1983년 장효조(1년차), 1993년 양준혁(1년차), 1994년 이종범(2년차)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2년차 이내에 타격왕에 오르게 된다.

타율뿐만 아니다. 강백호의 올 시즌 조정득점생산(wRC+)은 163.0에 달한다. 만20세 이하를 기준으로 따지면 2008년 김현수, 1992년 홍현우(당시

해태 타이거즈)에 이어 역대 3위다. 1994년 김재현, 1995년 심정수, 1995년 이승엽 등 전설들보다 앞설지 관심이 쏠린다.

●양익지, KBO는 물론 ML에서도 드문 대기록에 도전!

현재 '장외 타격왕'은 타율 0.363을 기록 중인 양익지다. 부상 중에 규정타석에서 제외됐지만 차이가 크진 않다. NC는 19일까지 113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NC 선수들의 규정타석은 350타석이다. 양익지는 현재 341타석으로 9타석이 모자라다. 차이가 크지 않고, 부상 복귀 후 매 경기 평균 4타석을 꾸준히 소화 중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중에 규정타석 진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주전급 백업' 김태균이 경찰 야구단에서 전역해 양익지의 체력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천군만마다.

양익지가 타격왕에 등극한다면 1984년 이만수(당시 삼성 라이온즈) 이후 35년 만에 포수 타격왕이 된다. 체력 부담이 심한 포수는 정교한 타격을 기대 받지 않는다. 메이저리그도 '라이브볼' 시대로 불리는 1920년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포수 타격왕은 7번에 불과하다. 그만큼 나오기 어려운 진기록이다.

▶프로야구 관련기사 3·4·6면
수원 | 최익재 기자 ing17@donga.com

남성대비,
여성 치매
발병률
1.8배↑

2018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
*임상 치매환자 기준



9년간,
50대
치매 환자
2.4배↑

2015.04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력 있으면,
알츠하이머
발병률
2~4배↑

중앙치매센터
치매사전-치매위험인자



치매환자,
1인당 비용
월 평균
173만원

2017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
*임상 치매환자 기준
*1인당 연간 치매비용 월 기준으로 산출



치매, 숫자만 봐도 걱정되시죠?

- 치매 진단금: 경도부터 중등도, 중증까지 단계별로 진단금을 꼼꼼히 보장!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특약): 긴 유병기간 걱정 없이, 매월 간병생활자금을 평생 보장!

치매 걱정 든든히 받쳐주는 (무해지환금형)
우리가족 **안심 치매보험**

치매가 걱정된다면, 깜빡하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860-6700

● 가입 만 2년 이후 보장, 최초 1회 보장(단,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특약은 매년 진단확정일 생존 시 평생 지급)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으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암을 알았어도
안심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이 있어도
안심

가족력이 있어도
안심

스탠드 에어컨플레이어
상담원료 시, 무료증정!

(이벤트기간: 2019.06.01~2019.09.30)
* 증정품 7월 이후, 최초 500명 한정 증정 (사실확인필요)
* 배송은 상품완료 후 약 6주 소요(1회 한정)
(당사 사본을 제출 부탁한 고객: 1회 지급 예정)
* 본 상품에 소액지급 기준, 청약철회를 소액지급 없음
* 본 상품 및 다른 상품에 대해 보증금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